

정성을 들인 번역을 하라

번역을 위한 문법

한겨레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이 있다면 둘로 정리된다. 하나는 어떤 사전을 쓰냐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문법책이 좋으냐는 질문이다. 내가 번역가로서 선배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한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조금은 당혹스럽다. 그래서 되묻는다. 특별한 사전이나 특별한 문법이 있을 것 같은가? 번역을 위해 특별히 알아야 할 문법이 따로 있는가? 내 대답은 두 질문 모두에게 “없다!”이다.

글_강주현

결론부터 말하고 넘어가자. 나는 요즘 번역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전을 사용한다. 물론 포털마다 조금씩은 다른 듯하다. 적어도 내 경험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포털 사이트의 사전은 야후 사전과 네이버 사전이다.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한다. 한 쪽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다른 한 쪽까지 점검한다. 결국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력을 들인다. 번역가에게 대충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번역이 나온다. 테크놀로지가 우리 번역가에게 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사전을 보는가?

두 사전이 아니라 시중에서 허락되는 모든 사전을 뒤져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럴 경우가 있을까? 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영영사전이 답이다. 영영사전은 영어단어의 뜻풀이다. 그 뜻풀이를 보고 우리말에 가장 알맞는 단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럴 만한 단어는 기존 사전에 다 쓰였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다’는 아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새로운 우리말 단어가 떠오르면 반드시 우리말 사전에서 똑같은 뜻인지, 혹은 비슷한 뜻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The cod became scarcer and smaller라는 문장을 보자. 아주 간단한 문장처럼 보인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대구가 점점 드물어졌고 작아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다. scarce와 small에서 보듯이 대구의 수와 대구의 크기에 대해 저자는 말하고 싶어한다. 이 점에 주목해서 번역하면, “대구 수가 줄어들었고, 크기도 작아졌다”라고 번역하게 된다. 내친 김에 좀더 나가보자. 대구의 수가 줄어든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단순히 대구의 ‘크기’ 하면 너무 일반적이다. 대구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를 강조하고 싶다. 저자의 의도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자, 생선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를 뜻하는 단어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영어사전에서 size를 쭉 훑어보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에이, 그냥 ‘크기’로 하자!”로

끝나도 상관없다. 하지만 좀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여기서 관련 분야는 낚시다. 낚시에 관련된 책을 보든지 평소의 상식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렇다! '씨알'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렇다고 곧바로 "씨알도 작아졌다"라고 번역하지는 말자. 일단 국어사전에서 '씨알'의 뜻을 확인해보자. 그렇다, "생선 한 마리의 마리의 크기"라고 정확히 쓰여있다. 바로 우리가 찾던 단어다.

번역이란 이런 식으로 최적의 단어를 찾아가는 것이다. 꼭 이렇게 해야 하냐고 반문하지는 말자. 어차피 번역은 정성의 문제이니까. 다만 나는 번역을 이렇게 정성스레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번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도 믿는다. 번역은 나만의 회의를 위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을 위한 문법?

번역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문법이 있을까? 없다! 영어 문법을 완전히 모르는데 지금까지 영어책을 어떻게 보았겠는가!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사용하던 문법책을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 전에도 입이 아플 정도로 말했지만 영문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영문법 책을 팔려는 사람들이 괜히 문법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 뿐이다. 게다가 영문법 책을 정확히 분석하면 90%는 단어 설명이고, 정작 문법은 10%에 불과하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하던 문법책을 사전과 비교해봐라. 사전을 문법 사항에 맞춰 정리해놓은 것일 뿐이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을 보면, 한 등장인물(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이 독일어 사전과 《자본론》만 들고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독일어를 공부한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다.

내게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번역 강의를 들은 학생은 "그래도 문법이 라고 가르치잖아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가르치긴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알고 있는 문법을 재정리하고, 우리가 별개로 배운 문법 사항을 결합시켜 보여주는 작업일 뿐이다. 문법 사항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결코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니다. 관계절과 의문절이 별개의

문법이 아니다. 또 눈치 빠른 학생은 눈치를 챌겠지만, 문법과 단어를 쌍방향에서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번역을 위한 문법은 없다. 문법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럼 문법책을 다시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그리고 문법들을 결합시켜라. 예컨대 영어에서는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멀쩡한 능동형의 문장을 왜 수동형 문장으로 만드는지 생각해봐라. 그 이유가 문법책에 있다. 그 이유가 쓰여 있지 않는 문법책은 좋은 문법책이 아니다. 그 저자는 문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쓴 사람이다. 수동구문은 강조와 관계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어도 강조와 관계있다. 이런 식으로 문법 사항을 결합시키는 혼자만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그런 문법책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문법을 완성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법의 10%밖에 채워지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사전에서 채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전을 열심히 참조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어쭙잖은 단어 실력으로 억지로 뜻을 꿰뚫추지 마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사전을 찾고 또 찾아라.

지금까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만난 번역가 지망생들 중에서 문법 자체가 부족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사전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아껴 위해서는 안 된다. 번역은 정성이다. **☞**

강주현님은 언어학 박사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중이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게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